

## News

### 금융당국,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6월까지 연장

머니S <https://bit.ly/3TQ82vT>

금융당국,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

연장되는 조치는 은행·저축은행업 예대율, 보험업 퇴직연금 차입한도, 여전업 원화 유동성, 부동산 PF 취급한도, 금투업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 규제 등

### 신한금융, 135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예정

한국경제 <https://bit.ly/3IJolsk>

신한금융지주, 2018년 4월 발행해 오는 4월 조기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135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 행사할 예정

도이체뱅크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

### '토스뱅크 유동성 위기설'에 흥민택 대표 "우려할 부분 전혀 없어"

파이낸셜뉴스 <https://bit.ly/3zdFums>

토스뱅크 대표는 최근 불거진 토스뱅크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언

대내외 시장 불안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상품이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

### 인터넷은행에 법인대출 대면 영업 추진

아이뉴스24 <https://bit.ly/3LW2IKV>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면 영업 허용을 검토

"인터넷은행의 새 먹거리 중 하나로 비금융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금융 데이터를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50%로 제한...초과시 공시 추진

뉴시스 <https://bit.ly/3LZmqA3>

7월부터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선정·평가기준 등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

그간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판 반영한 조치

### 설계사 500여명 'CS라이프' 품은 삼성생명... 한화 추격 뿌리친다

머니S <https://bit.ly/3LW6BKA>

삼성생명 자회사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CS라이프 소속 20여개 지사, 500여명의 설계사들에 대한 인수를 추진

CS라이프 전체 설계사 1200여명 중 41.6%를 영입하겠다는 것

### STO 선점 나선 증권사...협의체구성·회사인수 등 공격적투자 진행

MTN <https://bit.ly/3FRugYL>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와 토큰증권발행(STO)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발표

토큰증권이 실물증권, 전자증권과 함께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

### 내년부터 증권사 '깜깜이 배당' 사라진다

한국경제TV <https://bit.ly/3TQfW8L>

내년부터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됨

금융당국,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